

5/19/24

설교 제목: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예배를 회복하라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말라기 1 장 1-14 절

(말 1:1)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다

(말 1:2)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절관주** 말 2:14, 롬 9:13

(말 1:3)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절관주** 렘 49:16

(말 1:4)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말 1:5)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제사장과 백성들의 죄**

(말 1:6)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말 1:7)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기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절관주** 삼상 2:17

(말 1:8)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 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러 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말 1:9)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 (말 1:10)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 (말 1:11)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 (말 1:12)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와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절관주** 말 1:7
- (말 1:13)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흠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와 말이니라
- (말 1:14)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와 말이니라 **절관주** 행 5:2

본서는 말라기 선지자가 쓴 소선지서입니다.

12 개 소선지서 중 마지막 책으로 총 55 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자 말라기는 BC 5 세기 후반에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활동을 했던, 세레 요한 이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기록 연대는 BC 450-430 년경으로 봅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BC 538 년 바사(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내린 칙령에 의거해 예루살렘 본토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 사역에 반응하여 BC 515 년 성전 재건 건축을 시작하였고 BC 445 년 성전을 완성하였습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 유다 백성에게 성전 재건을 촉구하시며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학 1:7)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학 1:8)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 (학 1:9)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 (학 1:10)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 (학 1:11)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 (학 1:12)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 (학 1:13) 그 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 (학 1:14)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 (학 2:1) 일곱째 달 곧 그 달 이십일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 (학 2:2)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 (학 2:3) 너희 가운데에 남아 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 (학 2:4)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이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 (학 2:5)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 (학 2:6)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 (학 2:7)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모하는 것이

(학 2:8)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와 그의 말이니라

(학 2:9)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와 그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와 그의 말이니라

성전을 완성하기까지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공작을 비롯해 많은 난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며 포기하지 아니하고 성전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완성한 후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의 생각처럼 속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성전을 완성하기만 하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대로 이스라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조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바사 제국 치하에서 궁핍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농작물 수확은 보잘 것 없었고 황충의 피해도 컸습니다.

유다 백성의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신 것은 아닌가?’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 백성인가?’

‘그렇다면 아직도 그 언약이 유효한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끌려가 70년간 포로로 살면서 제국들의 대단한 위용과 영광을 본 그들은 자신들이 너무 초라하고, 세상에서 하찮은 존재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냉담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제사나 십일조 제물에 대한 규례를 범하였고, 이방인과 혼인을 했으며, 도덕적으로 타락해 갔습니다.

이러한 일은 비단 그 시대를 살았던 유다 백성만이 아니라 믿는 우리 모두가 겪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 한껏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약속 성취에 대한 소망을 품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지키며 삽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자신이 생각한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약속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며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해 냉담하게 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많은 어려움들이 따릅니다.

그렇지라도 믿는 우리는 그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도 모두 이 싸움을 싸웠습니다.

본서는 가깝게는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멀리는 이같은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본서는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말 1:1)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말 1:2)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말 1:3) 예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말 1:4)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말 1:5)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하나님이 경고 전 이 말씀을 주신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분이시기에 유다 백성들이 지금 마음 속에 품고 있는 생각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언약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 언약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였다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어떻게 사랑하셨느냐고 반문합니다.

“사랑하신게 고작 이겁니까?” “그런 사랑이라면 필요없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당신의 그들을 향한 사랑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일깨워주어,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당신의 사랑은 감정이 아닌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라고 하시며, 그들이 당신이 택하신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사랑은 언약적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를 언급하십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하였다”고 하십니다.

에서가 장자임에도 당신이 야곱을 사랑하셔서 그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장자인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하신 것이 그들의 선악이나 기질적 장단점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에돔 족속은 역사의 과정 속에서 잠시 성공하는듯 했으나 결국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백성은 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당신이 사랑하셔서 택한 언약의 백성임을 상기시킨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마음이 냉담해지어 그들의 예배가 형식적이고 의무적이게 된 것에 대한 지도자의 책임을 물으신 것입니다.

(말 1:6)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라고 부르시자 제사장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라고 반문합니다.

그 증거를 대보라는 겁니다.

건방지게도 이들은 하나님의 지적에 꼬박꼬박 반박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대로 조목조목 증거를 대십니다.

(말 1:7)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말 1:8)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 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러 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말 1:9)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눈 멀고 절고 병든 짐승들을 제물로 가져왔고, 제사장들은 아무런 제재없이 그런 것들을 받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들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나 경외심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제사는 형식만 갖추었을 뿐 정성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과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셨고 받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빠짐없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으므로 하나님은 당연히 자기들의 기도에 응답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기도하고 바라는 대로 응답하시지 않자 하나님에 대해 더욱 더 냉담해져 갔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제물을 받기 싫으니 성전 문을 닫으라고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말 1:10)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서는 그들을 기뻐하지도 않고, 그들이 드리는 제물을 받지도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당신의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말 1:11)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그 말씀이 성취되지 않아 속상해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성취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배를 주일마다 빼먹지 않고 꼬박꼬박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 섭섭해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점검해 보십시오!

드리는 예배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예배인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형식만 갖추어 드리는 예배인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습관적으로 형식만 갖추어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도 기도 응답을 바라고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지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당신을 예비하는 그 한 사람을 찾아 당신이 예비하신 복을 주십니다.